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던진 충격과 파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촛불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정, 정의, 평등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이런 촛불 정신을 정면 부정한다. 조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으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도로아미타불' 물거품이 됐다. 조 후보자의 가장 큰 과오는 현 정부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 O.U.T'을 외치며 촛불을 든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이다"라고 말한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23~24일),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 60.2%

무엇이 정의고 공정인가?

가 반대했다. 20대 젊은 세대에서는 68.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는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51.2%)가 가장 많았다. 여론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아집이고 오기다.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지명됐다. 그런데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도덕성과 언행일치,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국 개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단언컨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개혁은 설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음침 조국'(陰翳國)을 통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 정권의 촛불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집권 여당의 비틀어진 '조국 지키기'다. 민주당은 검찰이 관계 기관과 협의의 없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을 '적폐' 개혁에 저항'이라 하며 '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 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만 해도 '검찰을 이끌 책임자'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라고 두둔하고 칭송했다.

압수 수색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검찰이 적폐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외압을 가하는 집권당이 적폐다. 집권당은 검찰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며 맹목적으로 충성하면 결국 정부를 죽이게 된다.

셋째,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와 법치와의 관계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에드워드 밴필드(Edward Banfield)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도덕적이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가족에 대한 무한 충성 감각'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치 훼손의 주범이고 사회 불신의 근원이다. 부끄러움 없이 가족에 대

한 맹목적인 충성에 빠져 있는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를 완수할 수 없다.

이제 청와대에 묻는다. 각종 의혹으로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가족이 출국금지당한 사람이 아직도 사법 개혁의 책임자라 생각하는가? 집권당에 묻는다. 누가 적폐 대상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가? 검찰인가 조국인가? 조국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이 부르짖었던 정의와 공정은 무언인가?" 친구 원희룡 지사의 충고처럼 "386 세대를 육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행동은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되던 그것이 위선이고 가만이다.

통상,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고 특권 인물에 집착하며 집권당이 낮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면 정부는 실패한다. 박근혜 실태에서 보듯이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이미 입증된 철칙이다. 조 후보자는 이제 허황된 권력에 대한 집착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불철저하고 안이하게 것을 성찰할 때다. 자신이 젊은 시절 때 그랬던 마르티네처럼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

종교칼럼

'두려움'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싸이게 된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불안은 잊어주고 가벼운 친다. 두려움은 인간의 상상력을 타고 끝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과 다양한 창의력을 소멸시켜 버린다.

성장기의 아이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게임이나 음란물에 쉽게 중독되는 원인은 '성적'이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가상의 세계 수단으로 들어가 은둔하여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해 전부터 설교나 상담을 할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장기간 집안에 틀어박혀 자신의 방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부쩍 많이 인용한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은둔형 외톨이로 해석되어 지는 '히키코모리'는 이제 정신의학적 용어가 되어 버렸다.

검도에도 처음 입문하면 사계(四戒) 즉 경구의혹(驚懼之惑)이라는 네 가지 경계해야 할 마음을 가르친다. 이 사계 중

경과 구는 두려움에 대한 것이다. 검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의 기합 소리가 찌릿 찌릿하거나 눈매가 날카롭고, 몸집이 크고 협상곳이면 겁을 먹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두려움을 경(驚)이라 한다. 경은 훈련과 연습에 의해 극복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힘을 키워 감으로써 이겨 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적이다.

또 다른 두려움으로 구(懼)가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기인하는 두려움이다. 자신도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른다. 까닭 없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이 두려움은 경보다 상대하기 훨씬 힘들다. 수련을 많이 쌓은 무사도 근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젊은 용맹스러운 장수가 어느 날 지도자인 모세가 죽자 큰 두려움에 빠지는 이야기가 있다. 이 용맹한 젊은 장수도 믿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갑자기 죽자 모든 영력과 격정 근심 후에 몰아치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느니라."(수1:9) 성경에는 두려움이 라는 단어가 356번 등장한다. 그만큼 '두려움'은 인생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모세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도 지켜 줄 것이니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다고 명령하여 가르친다. 그 후 여호수아는 그 명령과 가르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이다. 두려움은 자꾸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열등하게 한다.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매일매일 넓혀 간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싸움의 대상이다. 자신의 마음의 땅을 차지한 두려움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두려움을 향하여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싸움에서 심 후에 몰아치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며 이렇게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고

광복절과 무궁화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리스트

이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일제 침략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나라꽃, 무궁화를 보면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이 떠오른다. 일제 강점기에 수난을 당했던 우리나라 꽃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꽃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라꽃의 품품한 기준이 없다는 건 여전히 숙제이다. 보랏빛 꽃송이가 한가운데에 자줏빛 무늬, 즉 단심(丹心)이 선명한 꽃을 흔히 나라꽃으로 여기고 있지만 무궁화 꽃에는 그 밖에 또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00가지가 넘는 품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형태의 꽃을 나라꽃으로 삼아야 할지 정확한 표준이 없어 애답다.(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님의 글 중에서)

무궁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자란 나무다. 최근 들어 나라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種) 보존을 비롯한 품종 선별 등의 연구와 실천이 적극 진행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나라꽃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연구는 모자란 편이다.

무궁화는 특히 일제 식민지 침략자들의 지독한 탄압을 거치면서 더 옹골차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다.

광복절이 되면 조국 광복의 기쁨과 함께 무궁화가 더욱 그리워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고향 마을길을 걷다 보면 울타리에 핀 무궁화를 만나게 된다. 참 예쁘게 잘 피었다고 말할 할 때 할머니께서는 그 꽃은 '눈에피꽃'이니 만지면 눈병이 온다며 절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쳐 버렸는데 성인이 되면서 일제의 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의 열을 없애기 위해,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만 들어 낸 말임을 알았다. 잔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식물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은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민중 사이에서 무궁화가 민족의 상징이란 김새를 알아챈 일제 침략자들이 온갖 구실을 만들어 무궁화를 탄압했다. 심지어는 손에 닿으면 부스러짐이 생긴다 해서 '부스러꽃'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모두가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다.

여러 가지로 잔혹하게 이어진 무궁화 탄압은 거꾸로 우리 민중의 무궁화 사랑을 더 간절하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침내 무궁화는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학교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궁화에 대한 교육

를 실시했다. 자율탐구 학습장 옆 공터에 무궁화나무 200여 주를 심어서 학습의 장(場)으로 무궁화 동산을 꾸미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꽃이란 것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의 정신을 무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교육하여 애국심을 발양(發揚)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무궁화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 들어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등 독립 유공자의 가족과 3대에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겠다는 방침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온 국민이 나라 사랑에 앞장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싶다.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침략자들이 맞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화(同化)의 대상으로 여긴 우리 민족이 이뤄 낸 나라꽃 무궁화의 장엄한 승리다. 광복절에 즈음하여 침략의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피어 있는 무궁화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민족정신을 되돌아보면서 애국·애족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나라꽃 무궁화를 생각하면서..

社說

5·18 사적지 적십자병원 보존 대책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 천변에 있는 옛 적십자병원은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유물이 다.

5·18 당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낸 곳. 1980년 5월 18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첫 피해자인 김경철 열사가 이송된 곳도 아니다.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행동은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되던 그것이 위선이고 가만이다.

통상,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고 특권 인물에 집착하며 집권당이 낮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면 정부는 실패한다. 박근혜 실태에서 보듯이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이미 입증된 철칙이다. 조 후보자는 이제 허황된 권력에 대한 집착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불철저하고 안이하게 것을 성찰할 때다. 자신이 젊은 시절 때 그랬던 마르티네처럼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

한일 경제전쟁 계기로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도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선도적인 전략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제2차 일본수출규제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등 세금 유예, 수·출입선 다변화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 전남도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금속·화학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관련 연구개발 과제 등의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시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역의 일본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남의 일본산 수입품으로는 화학공업 부문이 52.3%로 가장 많다. 광주는 공작기

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설비용 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 철강·금속과 금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에 사·도가 마련한 대책은 수십 년째 되풀이 돼 온 정책 구조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두 품목이 광주 전체 수출액의 66.9%를 차지하고 광주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액 비중은 31.8%에 달해 해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다. 전남 역시 중화학 중심 산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산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원책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첨단 부품·소재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를 혁신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꼽으라면 적반하장(賊反荷杖)과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자성어는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 어원까지는 몰라도 그 뜻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중 적반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등으로 인한 한일 대립, 일련의 여야 갈등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린 단어이다. 적반하장의 사전적 의미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때)를 든다'이다.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뻔뻔한 경우를 빗대 말로, 조선인 조대형이나 홍만종(洪萬宗)의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자세한 풀이가 나온다. 이 책에는 '적반하장, 이비리굴자반자능력(賊反荷杖, 以比理屈者反自贖贖)이라 해서 '적반하장은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성내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적반하장은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빌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상대를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형태로 많이 쓰인

無等鼓

다. 참고로 순오지는 홍만종이 숙종 4년(1678)에 지은 잡록으로 보름 만에 완성했다는 뜻에서 불은 이름이며, 같은 의미에서 '십오지'(十五志)라는 별칭도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와병 중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평소 들은 여러 가지 민담과 속담 등을 심심풀이로 기록한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적반하장'의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둑이 잘못을 빌거나 도망가지 않고 몽둥이를 드는 까닭은 우선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이다.

적반하장

광주시교육청이 얼마 전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 측의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고려고는 증거를 대라며 오히려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교육청을 비난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이 '적반하장'이라며 일명 대처를 지시했다. 고려고의 적반하장이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억울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목과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인지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